

“로컬 특징 반영해 ‘포용 관점’서 디자인 구현”

CULTURE

2025년 9월 2일 화요일



8월 30일 개막된 ‘2025 제 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19개국 429명, 84개 기관·단체, 작품 163점이 출품됐다. 그런데 이중 가장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최태욱 코디네이터가 주도한 ‘도시지하철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처음 전시개요가 발표됐을 때부터 주목을 받은 이 작품은 시민대중들의 일상 공간에 자리한 기존 역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의 코디네이터인 최태욱씨로부터 이 작품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태욱 코디네이터는 광주 지하철 20년을 맞아 모두를 위한 포용을 주제로 기획된 ‘도시지하철프로젝트’에 대해 송정역을 다채로운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이 구현돼 완전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

관람객 관심 집중 ‘지하철프로젝트’ 이끈 최태욱 코디

키워드 ‘5·18항쟁과 무등산’…장애인 입출구 등 개선
전남·조선·전북대 학생 12명 참여작 ‘실용화’ 기대

된다. 최 코디는 개찰구나 장애인 이용 편의 대폭 강화, 송정역이 KTX 광주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대표 명산인 무등산에 대한 형상화 등을 구현하게 된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코디는 먼저 주제 벽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입방을 전시관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각인돼 있는데 이를 철거되는 대신, 광주의 키워드인 ‘무등산’과 ‘5·18항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다고 귀띔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대와 조선대, 전북대 등 세 대학의 디자인전공 학생 12명이 참여해 구현된 작품이며, 아마추어적이지만 가장 실용화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크게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포용디자인을 적용할 주요 매표대를 비롯해 역사 내부 벽면에 광주의 상징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무등, 모두를 향한 시선’이라는 명칭으로 벽면 공간 연출에 박자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 입방을 전시관이 철거되고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5·18 항쟁’의 아픈 역사를 입체적으로 포용, 각도를 15도 기울이는 등 경사각을 반영해 어느 거리에(키 높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조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 89가지 인포그래픽과 13가지의 제품디자인이 ‘포용 디자인’이라는 이를 아래 놓아도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올 12월 이내 대부분 다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송정역의 변화된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도록 제3전시장에서 축소된 모형으로 구현됐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교통공사의 관할로 9월 중 송정역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정역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개통될 제2지하철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기존 개찰구(입출구) 폭이 확장돼 휠체어 진출입 편의 제공 등 이용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등산’과 ‘5·18항쟁’을 시

각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코디는 모두를 위한 시선이 반영된 포용 각도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오렌지 면이 무등산이고, 그것을 학생들이 일러스트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땀거든요. 그 다음, 밑에 음영으로 돼 각도가 져 있는 것을 ‘포용 각도’라고 하는데 무등산의 전경과 민중화의 아픈 역사를 시각화하게 됩니다. 모두 낮낮이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게 디자인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최 코디가 송정역에 변화를 가하는 것은 의외로 많다. 물품보관함과 게이트를 제외하고 간판, 출구, 개찰구 표시나 지하 3층 탑승구 대기장, 상가 철거와 벽면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테면 개찰구 표시가 굉장히 좀 유니버설하고 포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화살표를 그려넣고 통로면을 넓게 설치했다. 탑승구 대기장은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돼 있는데 원형으로 처리해 이용객 누구나 잠시 쉬어가게 배려할 복안이다. 화장실 옆 상가는 철거되고 대신 그 벽면에는 5·18항쟁을 상징, 포용디자인이 투영된 518cm의 벤치 두 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 코디는 ‘무등산’과 ‘5·18항쟁’이라는 키워드를 스테디를 해서 조사 분석을 했다고 전제한 뒤 포용디자인을 반영, 다수 사용자들에 만족감을 전해주는 접근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향후 남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광주의 로컬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 것이지요. 저하가 선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 지하철 20년을 맞아 기획된 ‘도시지하철프로젝트’가 광주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송정역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등을 통해 탈바꿈될 송정역 축소 모형이 제3전시실에서 구현된 모습.

국민들이 뽑는 ‘민주·인권·평화 솟품’

문화전당, 14일까지 국민심사·공개검증 실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오는 14일까지 ‘2025 ACC 민주·인권·평화 솟품 영상 공모전’ 1차 예선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국민심사’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ACC는 지난 5~7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고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 ACC 민주·인권·평화 솟품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74개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1차 심사에서 53개 작품이 선정됐다. ACC

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심사’와 ‘공개검증’ 후 2차 심사를 거쳐 청년·일반부 11개, 어린이·청소년부 11개 등 총 22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한다.

ACC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의 시대적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을 국민과 함께 선택해 공모전의 의미를 더하고, 또 국민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심사를 ‘국민심사’와 ‘공개검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ACC 누리집(www.acc.go.kr)이나 국민참

여플랫폼 소통24(www.sotong.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일반부와 어린이·청소년부 각각 일반영상, 인공지능(AI) 활용영상으로 나뉘어 4개의 부문에서 각 한 번씩 총 4차례 투표가 가능하다. ‘국민심사’ 결과는 2차 최종 심사에 반영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개검증’을 통해 출품작의 표절이나,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공개검증’ 참여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지정된 양식을 내려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메일(52song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수필과 창작수필 이야기 등 내용 ‘다채’

반년간 ‘한국창작수필’ 2호 출간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이사장 오덕렬 전 광주 문인협회장)는 반년간 ‘한국창작수필’(풍백미디어 제 2호)을 지난 1일자로 펴냈다.

항상 깨어 있는 문화 정신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로 지난 3월 1일자로 창간한 ‘한국창작수필’ 2호에는 ‘이야기 방언시’를 개발하겠다는 새로운 포부를 담은 권두언을 비롯해 제2호가 새롭게 시도하는 내용 등 다채로운 코너가 선을 보인다.

이번 2호에서는 ‘창작적 진화’를 거듭할 것을 전제로 한 뿌리라는 것을 살펴한 수필과 창작수필 이야기, 우리의 각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밝힌 정오



표 게재, 등단작 심사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독자들의 상상력을 배가하기 위한 삽화강화, ‘창작수필’의 원대한 꿈을 표현한 한강노벨문학상 수상, 100문 100답(연재)을 다루고 있다.

또 북한어로만 풀이된 낱말은 우리 화원들의 국어를 갖고 다듬어 가겠다는 우리말살, 만주족이 결국 사라져버린 이유 등을 통해 문학어의 보고인 소중한 방언의 조명 등을 살펴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